

참여와 은둔의 변증법

강상현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직업으로서의 대학에 몸담은 지 이제 4년 하고도 반년이 지났다. 겉으로는 머리가 적당히 벗겨진 채 회썩회썩하고 안으로는 온갖 지적 풍상의 예지로 충만할 것 같은 ‘대학교수상’을 떠올린다면 나는 아직 피라미에 불과한 입장이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대학에 대해 자신있게 무언가를 말할 처지도 아니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이라는 곳, 그리고 내가 천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학교수’란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잠시 정리해 볼까 한다. 특히 대학교수의 온당한 처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좁혀 보고자 한다.

4년 반 전, 신설된 지 오래지 않은 학과에 마음 조이며 구두면접을 볼 때, 한 노교수는 대학이 무엇하는 곳이며 또한 대학교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물은 적이 있었다. 그런 질문 앞에서 심판대에 올랐던 나는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깊이있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연구하고 학생들 잘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대답이 고작이었다. 그러던 내가, 지난 연말 나의 후임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역시 그 노교수와 한 패거리(?)가 되어 서류심사를 통과한 일부 지원자들을 향해 조금은 당돌한 입장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자신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질문을 마치 정확하게 아는 듯이 당돌하게 내뱉은 것이다.

“대학은 무엇 하는 곳이고, 대학교수의 기본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와 비슷한 대답으로 얼버무리는 분이 있었는데, 조금은 자신있게 대학과 대학교수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 말하는 분도 있었다. 대답은 대개 세 가지로 압축되었다. 연구와 교육과 사회봉사라는 것이었다. 대학이라는 제도의 기능과 대학교수라는 개인의 역할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그러한 세 가지를 축으로 맞물려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교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의 이념이나 역할을 주제로 한 글들도 대개 그러한 전제 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대학이나 대학교수의 그러한 세 가지 기본 역할이나 사명에 대해 케케묵은 논설을 재론하거나 해묵은 사실을 늘어 놓자는

것은 아니다. 비록 짧은 경험이지만 그동안의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그러한 원칙론적 요구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를 반성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성을 향한 독자적인 연구활동에 얼마나 열심이었고, 학생들을 향한 교육에 얼마나 충실했으며, 나아가 사회를 향한 봉사에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자문해 보는 것이다. 특히 연구와 교육은 학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사회봉사는 학외 공간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다.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특히 현실과 시공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언론현상에 관한 분석을 주로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연구와 교육이라는 기본직무 외에 사회봉사의 범위와 한계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가 늘상 따라 다니는 고민의 하나였다. 고민의 결과는 언제나 '사회참여'와 '연구실의 은둔'이 빈번히 교차하는 순환의 연속, 좌불안석의 시간이었다고나 할까?

처음 함도 부산에 자리를 잡고나서 1~2년 동안은 신입교수답게(?) 연구실의 불박이마냥 강의 준비와 논문작성, 그리고 강의에 전념하다시피 했다. 당시 강의실 바깥, 아니 대학의 바깥이 그렇게 조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현실 그 자체보다는 현실에 대한 텍스트에 더 열중했다. 현실에 대한 텍스트를 통해 현실을 이해하려고는 했지만, 모순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선의 처방을 내놓는 데까지는 몸을 맡기지 않았다. 그런 덕분에 전에 맞보지 못한 지적 탐구의 회열에 자아도취되기도 했고, 약간의 지적 자만심이 용트림치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사회가 점차 자신으로부터 객관화되고 심지어는 분리되어 나 자신이 '사회의 구경꾼'으로만 자리잡고 있는 데 대한 일종의 무책임, 그리고 그로 인한 자기불만의 감정이 축적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

회를 바라보기만 할 뿐 사회에 대한 어떠한 기여도 못하는 사회과학자의 자아도취는 지적인 사치에 불과하다는 잠정적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러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외부의 자극이나 요구에 쉽사리 자신을 맡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방화'의 열기가 피어오르는 시점에서 지역시민단체의 모임이 결성되었고, 나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책(?)을 맡기도 했다. 지방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정서를 외면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팽배하면서 나는 또 그와 유사한 접두어를 가졌거나 그러한 지향성을 가진 단체에도 이름을 걸었다. 우리 사회가 군사독재의 폭압체제 하에 있을 때 별다른 항변도 못했던 무력한 식자의 한 사람이었다는 자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2년이 지나는 사이에 학술적이건 비학술적이건 결코 적지 않은 사회단체나 연구단체의 성원이 되었다. 사회봉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남못지 않은 연구 성과도 내려고 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전과 다름없이 하려고 애썼다. 신참자다운 과욕이었다고나 할까? 결국은 얼마되지도 않아 그것이 지나친 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능력도 없고 자질도 되지 않는데 마음만 앞섰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무슨 일을 한답시고 뛰어 들면,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요구되고 실제 또 적지 않게 부가되었다. 할 일은 많은데 정작 일할 사람이 적은 사회참여의 영역에서 인력수급의 시장원리는 어김없이 작동했다. '자꾸 이리다가는...' 대학교수의 도를 넘는 사회참여는 연구와 교육이라는 또다른 역할축에 위기감을 가져다 주었다. 사회봉사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다시 자문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피신처를 찾았다. 얻은 대답은 '전공과 관련된 영역에서만 사회에 봉사하자'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의 언론과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고 또 교수가 나설 일이 적지 않다는 생각에서

였다. 특히 전공과 관련된 사회봉사는 연구와 교육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그 연장선에서 사회적 실천에 힘을 보태어 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다보니 기존에 참여하던 일부 사회단체에는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되었다. 그 쪽 시각에서 보면 시답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로서는 제한된 절대시간 속의 케도 수정이었지만, 내가 발을 뻗 단체에게는 최소한의 김이라도 뻗 셈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시 나는 전공 영역에서의 의미있는 사회봉사를 위해 그와 연관된 이론학습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려고 했다. 연구실의 불은 그전보다 더욱 늦게까지 켜져 있었고, 공부하는 재미가 한결 더해졌다. 당분간 ‘참여’ 대신 은둔이 계속되었다. 이론 무장을 위한 자기수련에 만족을 느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문하게 되었다. ‘적어도 전공과 관련해서나마 사회를 향해 뭔가 말하고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러한 자문을 하는 나 자신은 지금 연구실에만 박혀있지 않은가. 그것은 곧 자기도피이며, 은둔이 아닌가. 우리 사회 전반의 언론과 지역사회의 언론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일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런 나는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신문 지면에 글을 써도 전혀 언론에 대해서만 쓰고, 시민운동의 영역에서도 언론관련 운동에만 참여하고, 우리 사회의 언론환경을 개선하는데 비교적 실천적인 학술단체에 주로 참여하고, 어디가서 강연을 해도 그런 쪽으로 처신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또 그렇게 해 왔다. 대체로 무보수이거나 약간의 사례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감안하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인 활동을 해 온 셈이다. 물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전공과 관련한 교수의 진정한 사회봉사는 것을 업무에 두다 보니 그런 쪽으로나마 지향되고 또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도 결코 적은 수고

로는 제대로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했고, 그만큼 연구를 할 수 있는 절대시간에 한계를 가져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활동 때문에 교육에 다소나마 소홀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가진 적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나는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아무리 전공 영역에서라도 분에 넘치는 과도한 사회봉사적 참여는 교수로서의 균형된 역할수행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다시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어디까지가 사회에 대한 교수의 적정 봉사인가? 사회봉사가 지나치면 연구와 교육이 흔들리고, 연구와 교육에 몰입하면 사회봉사가 미흡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사회의 현장에서는 연구실과 교실에 미련을 갖게 되고, 연구실과 교실에서는 사회의 현장을 넘보게 되는, 그럼으로써 참여와 은둔을 불안하게 오가던 나는, 역시 어쩔 수 없는 신참교수임을 절감하게 된다.

노교수는 말한다. 아니 대학에서의 원칙론은 말한다.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는 그렇게 분리된 영합적인 역할이 아니라, 함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대학과 교수의 역할”이라고. 그러나 피라미 교수인 나는 아직 그 말 뜻을 헤아리기 어렵고 또 그렇게 잘 되지도 않는다. 하나를 쫓으면 다른 하나가 흔들리고, 다른 하나에 열중하면 또 다른 것이 불안하니 아직은 능력도 없고 수련이 덜 된 탓인가 보다며 자책을 계속한다. 다만 욕심을 덜 부리고 마음을 비우면, 사회에의 참여와 연구실의 은둔이 갖는 변증의 발전적 균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짐작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

강상현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장과 부산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중이다. 공저로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역서로는 『지배권력과 제도언론』, 『제3세계 커뮤니케이션론』 등이 있다.